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는 것이다.” (마태 23,37-39)



제1독서

탈출 22,20-26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억누른다면 나는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화답송

시편 18(17),2-3 7.3 ㄴㄷ-4.47과 51 (◎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2독서

테살 1,5 ㄴ-10
〈여러분은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음

마태 22,34-40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때에 ³⁴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³⁵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³⁶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³⁷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³⁸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³⁹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⁴⁰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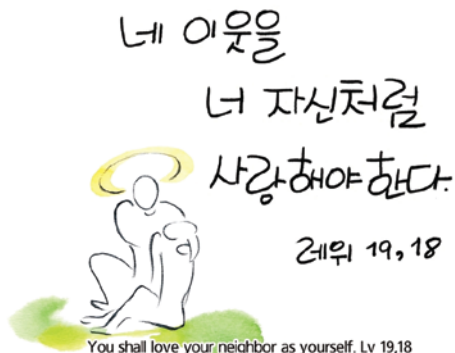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하세요

- 프란치스코 교황

예수님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 둘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지요.
실상 복음서의 각 장에는 이러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어른과 아이, 유식한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의인이나 죄인 할 것 없이
모든 이가 그리스도에게서
진심 어린 환대를 받았으니깐요.

〈프란치스코 교황, 그대를 나는 이해합니다〉



바오로알 콘텐츠

†복음 묵상

어느 신부님의 강론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죽음을 맞이한 할머니 이야기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날마다 지하철역에서 구걸하며 연명하였는데, 그 겨울 추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뒤, 시청 직원들이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150만 달러나 되는 큰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을 두고도 할머니는 먹지도 못하고 기름도 아끼다가 배고픔과 추위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할머니의 삶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적당히 맛있는 것도 먹고, 잠도 따뜻하게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할머니와 제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신문 기사가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신부가 죽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침대 밑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5,000개나 남아 있었다.”, “신부가 죽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침대 밑에서 한 일 없이 버린 시간이 20년이나 남아 있었다.”, “신부가 죽었다. 그런데 그 신부의 침대 밑에서 아껴 둔 웃음이 만 리터나 남아 있었다.”

어쩌면 평소에 감사함을 표현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지도 않고, 괜히 사람들 앞에서 얼굴만 찌푸리며 사랑할 기회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할머니는 아직 돈을 쓰기에 멀었다고 생각하며 아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사랑하기를 자꾸 미루며 오늘 하루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지요?

(한재호 루카신부)

전 세계 아이들, 공중보건 위기 종식을 위한 묵주기도 동참

지난 10월 18일 세계 각지의 학교와 유치원은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가 주최한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묵주기도 캠페인을 통해 23개의 언어로 묵주기도가 봉헌됐다. 이 가운데 아랍어와 아프리카의 몇몇 고유 언어도 포함됐다.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의 말씀에서 영감 받은 캠페인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는 동정 성모님께 전 세계의 평화와 일치를 의탁하는 찬양의 기도인 동시에 코로나19 대유행이 야기한 공중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의 종식을 간청하는 기도다. 묵주기도는 23개의 각기 다른 언어로 봉헌됐다. 이 가운데 아랍어와 몇몇 아프리카의 고유 언어도 있었다. 이번 묵주기도 캠페인에는 가나와 시리아, 파푸아뉴기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80개국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사실 아이들이 함께 바치는 묵주기도의 역사는 2005년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이들은 “100만 명의 아이들이 묵주기도를 바친다면 세상은 변할 것”이라고 말한 오상의 성 비오 신부의 조언에 따라 기도소 앞에 함께 모여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바쳤다. ACN은 2008년부터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2살 이상의 전 세계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기도를 전개하고 있다. ACN 국제 재단장 마우로 피아첸자 추기경은 기도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으며, 세상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계속해서 노출돼 있습니다. 수백,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파괴적이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사회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 바이러스에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 이상 같은 세상이 아니며, 지금까지 당연히 여겨 왔던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땅 끝에 사는 아이들이 바친 묵주기도

전 세계 많은 학교가 ‘100만 어린이의 묵주기도’에 참여했다. 파푸아뉴기니의 중부 지방 도시 베레이나에 위치한 ‘착한목자예수’ 초등학교도 그 중 하나다. 착한목자예수 초등학교 교사 안나 수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교구 주교좌 성당 부속 초등학교예요. 이곳 아이들은 종종 특별한 사제인 주교님을 만나고 친해질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주교님이 무언가를 말할 때면 언제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잘 이해합니다. 이렇게 주교님의 모습을 예로 들면서 우리는 교황님이 누군지 아이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었죠. 아이들은 교황님이 친구들을 위해 자신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죠. 저는 진정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교황님을 더 가깝게 느낄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도 아주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느꼈다고 생각해요. 비록 우리가 세상의 땅 끝에, 교황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이죠.”

Marina Tomarro / 번역 이재협 신부

■ 전문 : <https://www.vaticannews.va/ko/church/news/2020-10/rosario-papa-francesco-preghiera-bambino.html>



묵주기도 YES or NO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우리 같이 묵주기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YES or NO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이다

NO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를 할 때 성모님을 기억하고 성모송을 여러번 바치는 것은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함께 전구해주시기를 간청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성모님이 기도를 즐겨주시는 대상은 아닙니다.

YES or NO 9일 기도 또는 54일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빠지게 되면 기도의 효력은 사라진다

NO 기도의 은혜는 내가 기도한 이상 분명히 주어집니다.

기도가 끊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https://cc.catholic.or.kr>)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신부 송별 인터뷰 /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4년,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이었음을 떠날 때가 되어서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성 정 바오로 성당 제8대 주임신부로서 ‘따뜻한 사목’을 위해 노력해온 백인현(안드레아) 신부. 인터뷰 내내 신자들과 함께 한 지난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다’고 거듭 말했다. 거창하지 않고 소박한 사목을 지향하며, ‘하느님 보시기에 사랑스런 공동체’를 꿈꾸었다는 백인현 신부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우들 모두 ‘부디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느님 보시기에 예쁘고 사랑스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라는 소박한 꿈을 꾸었습니다

2016년 7월 29일부로 버지니아 교포사목으로 인사발령을 받고, 2016년 9월 8일에 성 정 바오로 성당에 부임해서 사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 오래 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왔는데 벌써 4년이라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벌써 그렇게 되었나 생각하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곳에 부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사제로서 새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택했습니다. 말하는 이는 많았지만 들어주는 이는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기만해도 많은 문제들이 술술 풀리고 해결되었습니다.

둘째는 신자들과 함께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함께 하되 고르게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소공동체, 신심단체, 활동단체, 연령별로 가능한 한 골고루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셋째는 거창하고 큰 계획보다는 신자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조금만 더 예쁘고 사랑스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라는 소박한 꿈을 꾸었습니다.

신자들을 보살피고 돌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신자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보다 오히려 신자들이 저를 돌보고 보살피는 일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미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늘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공동체가 함께 봉헌하는 미사마저도 금지할 수밖에 없었던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놀라고 고통스러운 마음은 누구나 경험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보다 다하지 못하고 제한되는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회장단과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안전하게 미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많은 활동들은 좀더 시간을 두고 여러가지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인 미사(성찬례)는 빨리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참례가 편안함에 밀려나 하느님 사랑 이웃사랑에서 멀어질까 우려됩니다. 우선 가정에서 온 가족이 정성을 모아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시요. 참석할 수 있음에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좀더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승격 25주년을 맞아 공동체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당 승격 25주년을 보다 의미있고 기쁘고 성대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하고 준비해오고 있었지만, 코로나19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외적인 행사는 불가피하게 수정 또는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외적인 행사는 못하더라도 본당 승격 25주년이 우리 공동체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영적성장을 이루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다시금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기도와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운동, 성경필사, 성경 읽기에 좀더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만남은 기쁨이고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시작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제들의 삶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잘 곱씹어보면 만남도 헤어짐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헤어짐으로 조금은 아쉽지만, 다음 주면 새로 부임하시는 신부님과 새로운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떠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하심과 새 본당 신부님과 슬기로운 여러분들을 믿고 떠납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주어진 4년간의 소임을 큰 탈 없이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함께 했던 지난 4년간의 생활들이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떠날 때가 되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느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기억에서 다 지워지고, 특별한 것보다는 작은 일들에서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만 새록새록 기억에 떠오릅니다. 매 미사 때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행복합니다!’ 대답하며 작은 사랑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기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억들, 행복했던 추억들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듬어주신 백인현 안드레아 신부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소주일에 다 함께 모인 주일학교 학생들과 신부님, 교사들 2017. 11.12

30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25, 2020

The Greatest COMMANDMENT of Jesus

He says,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greatest and the first commandment. The second is like i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Matthew 22:37-39).

What does Jesus say the greatest commandment is?

At first, you might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would be to not kill anyone, wouldn't you? But that's not what He says!

The very most important thing is to love God with our whole heart and soul and mind. It means that we must do everything we do for the love of God, and live our whole life completely for Him.

But how can we love God so much?

Well, we can practice little by little, loving Him more each day. Paying attention at Mass every Sunday and saying a prayer every day would be a good start. Every morning tell God that you will do everything for Him that day. Every night before you go to bed, thank God for all that He has done for you and tell Him you're sorry for the bad things you did that day. Also, try to think about God throughout the whole day.

The second greatest commandment that Jesus tells us is that we should love others as much as we love ourselves. If we really love God, then we will want to love other people too, because God loves them!

If you don't love others, it shows that you don't really love God as much as you should. What can you do today to start loving God more?

<adapted from <https://www.thekidsbulletin.com>>

본당 청소년 · 청년들을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OPEN



SPC Youth Media

SUBSCRIBE

FOLLOW US



@spc_emmaus

1 주임신부님 송별미사

•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님께서 원주교구의 인사 발령에 따라 임기를 마치시고 한국으로 가십니다. 그동안 주님의 목자로서 헌신적인 사랑을 쏟으신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마음다해 기도드립니다.

• 송별미사 : 10월 25일 오전 10시

2 제9대 주임 김태진(베네딕토) 신부님 부임미사

부임미사
11월 1일(일) 오전 10시

제9대 주임신부로 부임하시는 김태진 신부님을 한마음으로 환영합니다.

3 주일 미사 안내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 오전 10시 미사 초과 신청으로 **주일 오전 8시 미사를 재개** 합니다. 보다 안전한 미사를 위해서 적절하게 분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

4 평일 미사 안내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수요일 : 오전 11시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예방 수칙은 주일미사와 동일합니다.)

5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6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유아세례 안내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2021년도 매일미사 책 주문

• 금액 : 1년분 \$65
• 문의 : 성물부 회장 조로사 (703) 608-7191

9 문화부 봉사자 모집

• 문화부 활동과 가톨릭 미디어 제작에 관심있는 봉사자를 찾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영상편집, 그래픽디자인, 음향장비** 등에 관심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정주용 토마스 (703-509-2287, juyong_j@hotmail.com)

11월 1일(일), Daylight Saving Time 종료

다음 주일인 11월 1일(일)부터 오전 2시가 오전 1시로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30주 주간: 예제 19-24, 1요한 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10월 18일(연중 제29주일)

주일헌금	\$2,005.00
교무금	\$7,470.00
교무금(크레딧카드)	\$2,600.00
감사헌금	\$500.00
2차 헌금	\$2171.00
합계	\$14,746.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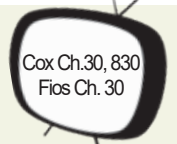
10월 28일(수) 오전 6:15-6:45 | 10월 31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백인현 안드레아 신부님의 송별미사 강론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10월 29일(목) 오후 5:00-6:00
10월 30일(금) 저녁 8:00-9:00
11월 1일(일) 오전 6:00-7:00



1. 정진석 추기경 주교 수품 50주년 특집 ‘추기경의 하루’
2. 서울 대교구 청소년국 마니피캣 어린이 합창단 노래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프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챌린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태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5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엄)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클로이 양 부동산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time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리아) 703-732-3836

미사 안내

주일미사 생중계

매 주일 오전 10시 미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난 주일 미사도 본당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www.stpaulchung.org

미사 시간 (MASS SCHEDULE)

※ 미사 참여 신청자 중 선착순 100명까지 미사참여 가능

주일미사	· 08:00 AM	평일미사	화요일	07:30 PM
	· 10:00 AM		수요일	11:00 AM
	· 05:00 PM		금요일	07:30 PM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황원근 (알렉산더)